# 천하 풍미한 선의 上流를 맛보자



윤창화의
## 중국 선원의 생활과 철학

### ① 한국 禪의 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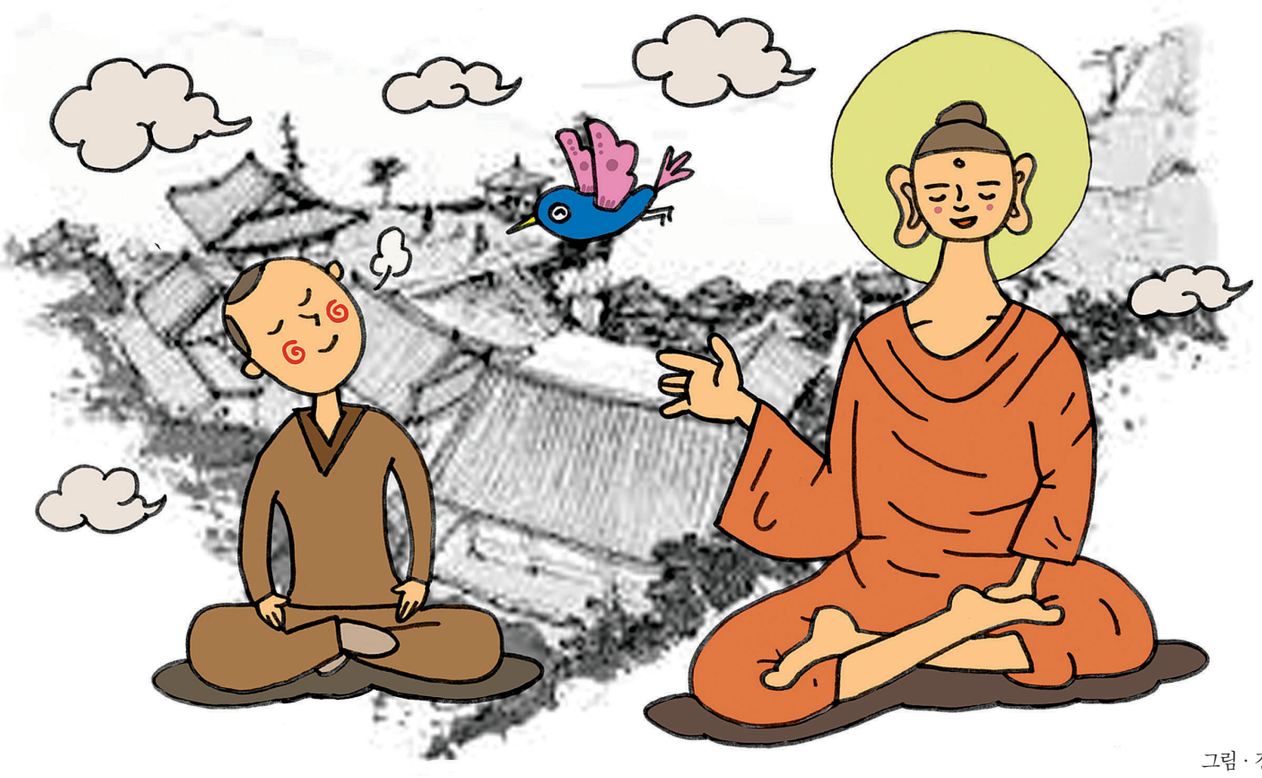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우리나라 불교 수행법은 선(禪)이다. 90년대 위빠싸나가 처음 들어온 이후 선(禪) 일색에서 좀 탈색되었지만, 여전히 선은 한국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오도(悟道)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선은 대내외적으로 거센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해 있다. 수행 · 사상 · 문화적으로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은 수행방법과 오도(悟道) 시스템, 그리고 지도방법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도 체계화 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있지만 '오직 모를 뿐[但只不會]'이다. '오직 모를 뿐' 더 이상 창의적으로 진여불성을 싹틔우지 못하고 있다.

선원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좌선을 하고 있지만, 위빠싸나를 하는 것인지, 간화선을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고, 화두를 들고 있는 것인지, 혼침(ㅗ 沈, 졸음)과 도거(掉擧, 번뇌) 속에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문제점은 개개인의 참구상태나 수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무관심 속의 방목선(放牧禪)이다. 과연 이런 무체계한 방식으로 깨달은 부처를 이룰 수 있을까? 혹시 막연히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닌가?

동아시아 '선불교 수행지도(地圖)'를 펴놓고 보았을 때, 지금 한국의 선은 어디쯤 있는가? 한국의 선을 수행 · 문화 · 사상적으로 그 원류인 당대(唐代) 조사선(순수선)이나 또는 송대 공안 · 간화선과 비교했을 때, 현재 그 원형이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문화혁명을 거친 중국 선불교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원형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곳은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일본 선종사원, 그 중에서도 영평사(永平寺)다.

한국 선불교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몇 가지 수행법, 혹은 선병(禪病, 弊害)이 생겼다. 그 하나가 이른바 "술을 먹어도 반야의 선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음주식육무방반야 수행법(無妨般若修行法)'이다. 이 특이한 '새로운 수행법'은 곧 '한국형 선병'으로 발전하여 한국불교를 망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주/注 : 이것이 한국 선불교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다).

또 선병 가운데 하나는 "무엇을 하든 항상 여여(如如)하게 본래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본래자리병'이다. 자신은 무엇을 하든 항상 본래면목(불성)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토굴에서 무사안일에 침잠해 있는 '무사안일 토굴병(無事安逸病)', 그리고 '한국 간화선이 최고'라고 하는 '한국 간화 아만병(我慢病)' 등이다. 이 신종 선병은 한국선, 더 나아가 한국불교를 멍들게 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선'이라면 구태여 화두를 들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것은 오히려 부질없는 망상이 아닐까?

한국 선불교에 이런 불치병이 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수행의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선원에서 '독참(獨 B)' 기능이 사라진 때부터라고 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는 '무애'라는 미명 하에 음주식육 등 파계가 횡행하던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선(禪)뿐만이 아니고 한국불교 전체가 망가지고 병들기 시작했다.

중국 북송시대 1103년 장로종색 선사가 편찬한 〈선원청규〉에는 "음주를 하는 자는 승복을 벗겨서 추방하라"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육을 하는 자도 참회하지 않으면 추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 추방할 때는 반드시 대중공사를 거쳐야 하고, 음주나 식육 사실이 확인되면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승려증(도첩) 등 도구 일체를 박탈하고 곤장을 쳐서 편문(偏門, 쪽문)으로 내쫓아버리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문서적 규정에 그친 것이 아니고 당시 선원총림에서 실행되었던 규정이었다.

'독참'은 법문과 함께 선종사원의 가장 중요한 오도(悟道) 시스템 가운데 하나이다. 1대1로 방장스님과 독대하여 참구하고 있는 화두(공안)에 대하여 지도, 점검받는 것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개별지도, 개별적인 카운슬링과 같다.

독참은 의무적이고 정기적인 것이다. 당 · 북송시대까지는 이틀에 한 번씩 있었고, 남송시대에는 5일에 한 번씩 있었다. 즉 3일 · 8일 · 13일 · 8일 · 23일 · 28일로, 한 달에 여섯 번 있었다. 독참은 매우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오도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독참은 조실이나 방장이 납자의 참구 상태를 예리하게 점검하고 다그치는 것인데, 독참을 하는 날은 사실상 참선수행자로서는 호랑이 입 속으로 머리를 들이대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목숨은 붙어서 살아서 나오기는 하지만 조실의 질타에 모두 다 초죽음이 되어 나온다. "살았구나. 오늘은" 하고.

그리고 방장이나 조실의 법문은 5일에 한번 씩, 즉 1일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로서, 모두 한 달에 여섯 번 있었다. '5일마다 법당으로 올라가 법문을 한다'고 하여, '오참상당(五 F上堂)'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안거 90일 동안 딱 2번 결제일과 해제일에만 있다. 상당법문

**한국 선수행 정체성 혼란**
**'독참' 시스템 부재서 발생**
**당 · 송 선불교에 해답이**

은 아무리 적어도 15일(보름)에 한번 씩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반야지혜를 갖추어서 정혜쌍수가 될 수 있는데, 방장이나 조실이 없는 선원은 그것도 불가능하다.

방장의 법문은 정견(正見) · 정안(正眼) · 선안(禪眼)을 갖추게 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정견을 갖추면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있고 수많은 언어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병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 법문은 경전을 강의하지 않는 선원에서는 교학적인 간극을 메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깨달아도 법문을 하지 못하면 겨우 혼자 왕생극락할 뿐, 중생을 데리고 가지를 못한다.

당송시대 마조, 조주, 임제, 운문문언, 원오극근, 대혜종고, 굉지정각 같은 선승들은 대단히 박학다식했던 이들이었다. 특히 〈벽암록〉의 편찬자 원오극근은 무려 100칙의 공안에 대하여 착어와 평창을 붙였는데, 중국 고금(古今)의 문물(文物)이 모두 다 〈벽암록〉에 집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당(盛唐)시대의 왕유, 북송의 제일의 시인인 소동파, 그리고 황정견, 왕안석 등 천재소리를 듣던 지식인들이 모두 선종사원으로 투항한 것은, 선승들이 표출하는 격외의 시상(詩想)과 송고(頌古) 등 선시(禪詩) 문학에 정신을 홀딱 잃었기 때문이다.

당송시대 선불교는 과장한다면 중국 사상계와 종교계를 석권했다고 할 수 있다. '위진현학,' '당송불학', '송명이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은 당송시대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지식인들은 선을 모르면 그는 일단은 지식인이 아니었다. 선시 한 구(句)를 짓지 못하면 지식인들의 모임에 나갈 수가 없었다. 다관(茶館)에서든 음식점이든 선을 모르면 대화의 축에 낄 수 없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국 선불교가 오도(悟道)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독참과 법문(상당법문) 기능을 부활시키거나 갖추지 못한다면, '성불작조'(成佛作祖, 부처와 조사가 됨)란 요원한 일이다. 선원은 이름뿐인 선불장(選佛場)이 될 수밖에 없다. 대사일번(大死一番, 크게 한 번 죽는 것)해야 한다.

스스로 활인검(活人劍)을 뽑아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성불작조(成佛作祖)'란 선원을 배회하는 깨닫지 못한 유령들의 호곡(號哭)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 '안일은 곧 무덤'이다. 수행자로서 방일하면 그 때가 끝나는 날이다. 불원장래, 어쩌면 한국의 선은 '천년의 장기 집권'을 내 놓고 야인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선승은 기개가 출격장부(出格丈夫)이다. 본래면목을 추구하는 뛰어난 장부(丈夫)로서 금생에 '인생의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생으로 미룬다는 것은 이름을 무색케 하는 창피한 노릇이다. 더욱더 확철대오를 외치는 수행자로서 '음주식육 무방 반야병'에나 걸리고, '무사안일 토굴병' 등 악성 선병에 걸린다면, 이야말로 한국불교는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신세가 될 수 있다.

가을이 다 되었는데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날씨 탓이다. 방일과 담을 쌓고 참구했는데도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적지 않은 수행자들이 '무사안일 토굴병'과 '음주 무방 반야병' '본래 자리병,' 그리고 '간화 아만병' 등 무서운 선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가? 그것으로써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는가? 한국 간화선이 과연 이 깊은 미망으로부터 헤어 나와 미래 한국불교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선(禪)만이 아니고 한국불교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나를 모르고서는 도저히 나를 바꿀(구제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지도가 있어도 찾아갈 수가 없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이는 곧 '나 자신을 알라'는 말이다. 선어에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말이 있다. '다리 아래 발밑(脚下)'을 돌아보라는 말로서, 현재의 자신을 직시하라는 뜻이다. 이 말 하나만 가지고도 선불교는 실존철학, 곧 존재에 대한 철저한 탐구자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 선불교의 모습을 조고각하(照顧脚下)를 해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선불교를 사상적 · 역사 · 문화적으로 그 원류인 중국 당송시대와 비교 · 고찰해 봤을 때, 한국 선은 남송 후기-원대(元代) 선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선(禪)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자체가 원나라(몽고) 불교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남송 후기-원대(元代) 선불교는 불행하게도 당송시대 조사선이 아닌 간화의 말류선(末流禪)이었다. 티벳 라마교와 혼합된 밀교색 짙은 불교로서 대처(帶妻)한 이도 많았고, 또 사상적 · 정신적으로 부패해 있었다. 당(唐) 중기 백장회해에 의하여 처음으로 율종 사찰의 더부살이에서 독립하여 중국 천하를 풍미했던 보리달마의 선불교!!, 부처와 조사의 경지를 뛰어 넘고자 했던 살불살조의 조사선 정신은 여기서 한바탕 장례를 치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자들의 후원도 거부한 채, 백장의 보청(노동) 정신인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생활철학으로, 오로지 성불작조에 매진했던 선종교단은 이 시기(원나라) 두 다리가 부러진 불구 상태였다. 원대 선불교는 이름 뿐, 선의 정신에서 멀리 이탈하여 곧 운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고려 말의 불교는 정치권력과 손을 잡는 등 부패해 있었다. 망가진 원나라 선불교가 밀물처럼 흘러들어 왔다. 주자의 성리학은 거친 목소리로 고려불교를 비판했다. 고려 말의 한국불교는 불행의 순간이었다. 원나라의 멸망과 함께 고려는 멸망했고, 불교는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근하신년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BBS부산불교방송 북항신사옥 건립 원만 성취와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200만 부산불자가 기원합니다.

불기2562(2018)년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
불기 2562년 1월 5일(금) 오후 6시 /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주관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명예회장 이윤희
상임고문 김동열 김선일 김성규 김수현 설동근 이헌승 이영숙 이해동 최익두 하정선
회장 박대성 수석부회장 양재생 상임부회장 공정근 문연주
부회장 김희윤 권승열 권혁란 박해일 박화자 이상갑 이재순 조영득 최주덕
감사 권기우 왕선자 교육학술원장 박영병 사무총장 안병호
이사 강근순 강길주 강미영 강수대 김광호 김도연 김말순 김민성 김상훈 김성익 김순덕 김순례 김영자 김윤희 김주홍 김진영 김태주 김태훈 김필순 김희빈 노연서 노종헌 박수영 박차수 박행운 백명숙 백정진선 변영호 서광자 심성욱 손여래심 심숙자 안소민 안천일 양웅모 여예진 오미희 오수희 윤경석 이갑준 이길문 이동진 이동현 이득재 이숙련 이상조 이승래 이승표 이향란 임성구 장병주 전홍기 정관희 정미자 정분옥 정순천 정연식 정임숙 정종학 정태권 조용진 지명환 최대경 최삼섭 최상곤 최진락 하현주 허장욱 허 준 허창석 황영애 황윤희 홍옥희
직능이사 공일형 금인순 김문희 류강렬 박용하 박창식 손정환 손정현 양지현 윤기혁 이륭우 이명학 이민우 이병호 이혜정 임화일 장문숙 정현숙 주재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401호
전화 051) 861-8800 / 팩스 051) 867-0504

ལོ་གསར་ལ་བཀྲ་ཤིས་བདེ་ལེགས།
[로쌀라 따시델레]
*[로쌀라 따시델레] '새해! 행복하고 편안하세요.'라는 뜻의 티벳 인사말

티벳대장경역경원은
·산스끄리뜨대장경과 교차 비교한 티벳대장경의 한글역경불사
·역경총서의 출간 및 보급
·티벳불교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티벳대장경역경원 Translation Institute for Tibetan Buddhist Canon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2층
티벳대장경역경원 후원문의 TEL. 054)770-2893